

I. 인터뷰

1. 박양호 국토연구원장(계획 8회)

1. 국토연구원장에 임명되신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개원 30주년을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임명되신 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셨던 사업이나 관심분야가 무엇이셨습니까?

제2의 개원차원에서 국정연구원 본연의 임무인 “실용적인 국가정책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 지향의 창조적 연구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1일 부터 5본부 18센터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눈높이에 맞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책의 테마별로 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융·복합적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당면한 연구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특히 지역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광역경제권 발전과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패러다임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 지역을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연구로서 농업용 위주의 토지이용을 산업, 업무, 물류, 신재생이 결합되도록 토지이용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민간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국토연구원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국토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국토연구원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융·복합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 품질의 효율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둘째, 지난 30년간 축적된 국토, 도시, 사회간접자본, 주택 정책연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관련 정책 및 제

도를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연구 역량의 규모와 질이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3차원의 접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원 내에서의 동료로부터 지식과 노하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대학 연구소, 학회, 관련 기업과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현실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 기관과의 MOU 등을 통해 세계적 국토 개발동향을 접목하여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연구를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1월에는 세계은행, OECD와의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정책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성장과 환경관리가 선순환적으로 이뤄지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와 환경이 상호지원하여 서로 발전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가져와 환경관리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국토·도시계획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 국토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세계경제변화를 전망하고, 국토도시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의 흐름과 고립되고, 뒤떨어진 국토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우리 국토의 경쟁력은 광역경제권의 확립,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과 인프라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반도만의 지형 즉, “3海 3多”를 살림으로써 국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즉,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3면의 바다를 활용해야 하고, 우리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과 강, 그리고 섬의 3多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산지구릉지를 활용한 국토발전, 4대강 살리기를 통하여 미래의 중요한 자원인 물자원을 축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3,300개의 섬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대를 만들어야 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잠재력을 살려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속도로 전략을 실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환경대학원은 지난 한 세대에 걸쳐 국토, 도시, 환경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환경대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대학원 선배로서, 국토연구원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향후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신 이론과 기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답사, 구체적 사례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등과 같이 실용적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프로그램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계경제와 사회의 변화 흐름을 기초 교양 과목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차원에서 자신만의 정책 연구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향, 기호, 앞으로의 진로에 맞추어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대학원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낙관적 신뢰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통섭적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다른 연구로부터도 많은 아이디어와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경대학원이 갖고 있는 다학제간 연구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선·후배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 사회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는 후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장 이동수 교수

1. 새로운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셨는데,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고, 연구소가 현재와 미래에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하의 답변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학원 교수님들께 향후 환경계획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나눈 의견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2.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현재를 진단하신다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으로는 많은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연구경험과 현장감을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인접 연구실(교수) 팀원과의 협동 연구를 통한 통합적인 접근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교수, 외부 전문가, 학생)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또한 연구행정의 관점에서는 연구예산관리를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학술적 연구소라기보다는 용역기관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당장 현실과 직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학술적 연구 사업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연구과제의 결과를 논문 등 학술적인 성과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구소 차원에서는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토론회, 집담회, 학술발표회 등을 열어 참여 연구자들의 학술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타 연구소와 비교할 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강점은 본 대학원에 소속하신 다양한 연구분야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시고 또한 그를 기반으로 넓은 인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중요시 하는 학제간 연구와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최근의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등의 말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연구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미와 환경계획연구소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아직 담론이나 당위 수준에서의 주장이나 선언을 넘어서 전반적인 실천 영역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일부 실천조차도 다소 과시적이거나 과잉 몸짓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본질적인 의미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과 대학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련 연구 분야를 검토하고 역할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따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연구 수행 및 결과의 측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대학원의 작은 규모의 연구진으로 힘이 분산되는 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계획연구소의 국가적,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나 연구 주제에 대해서 논문 또는 단행본으로 학술적,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수들이 대부분 일부 사안에 대해 개별 의견을 주로 제시하는 편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그에 앞서 연구소 활동을 통해서 고민을 토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사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관리비 일부를 집담회 등의 비용으로 활용하여 토론회와 공동 집필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발전방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장래의 방향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연구소의 강점인 학제적, 통합적 연구의 잠재적 가능성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가 주축이 되는 공동 학술행사를 개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연구 방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많지는 않았지만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있었는데, 이 또한 극히 제한된 전공의 교수들만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통한 발전방향이 모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교수들이 관심을 가질 공통주제를 제안하고, 학술 잔치로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II. 환경대학원 소식

3. 환경대학원 홈페이지 리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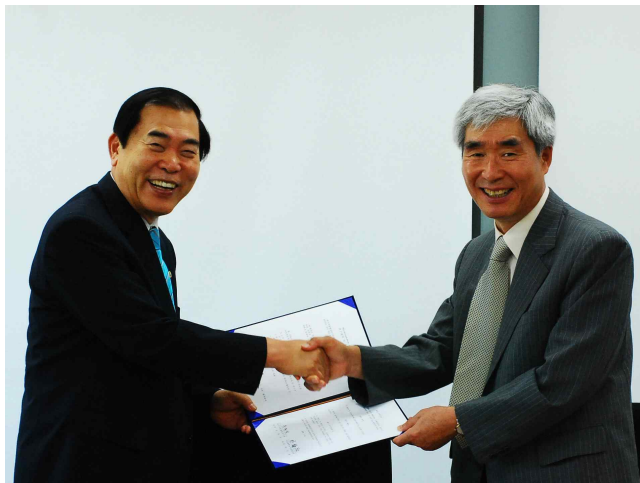
환경대학원 홈페이지는 오픈 6년을 맞이하여 사용자들로부터 꾸준히 홈페이지 리뉴얼요구를 받았다. 이에 올 여름부터 10차에 걸쳐 기획홍보위원회(위원장 조경진 교수) 회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리뉴얼 작업을 실시하였다. 현 홈페이지는 2003년 완성되어 정보요구자들의 흐름에 맞추는 보완작업이 필요하였다. 홈페이지 리뉴얼의 큰 방향은 정보구조 측면에서 메뉴형태를 3depth의 구조를 2depth 구조 형태로 간소화 하였으며, 메인네비게이션(메뉴)와 기관의 정보를 분리·배치하여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메뉴는 폐지하였다. 또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위치 및 명칭을 변경 하여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뉴스, 행사, 기획기사 등 정보교류 메뉴 중심)를 추가하였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기존 정보를 현 상황에 맞도록 업데이트 진행하였다. 또한 현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모콘티 사진을 다양한 대학원 현장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활동적이고 비주얼한 홈페이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번 홈페이지의 특징은 대학원내 뉴스, 행사 등 환경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대외 홍보와 학교 홍보까지 커버하는 기획홍보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컨셉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다.

이번 홈페이지의 디자인 컨셉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도시, 환경, 교통, 조경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원으로서 학문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Layout은 환경대학원의 학교생활 및 외부활동 모습을 볼 수 있는 갤러리 영역과 이벤트, 포토뉴스, 공지사항, 퀵메뉴 영역을 분리하여 시각적 구분 및 편리성을 높였으며, Visual은 교내의 다양한 활동사진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교수와 학생 및 외부 일반인들이 환경대학원을 밀접하게 접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홈페이지 우측의 네 가지 메뉴를 균등히 분배하여 가시성을 높였으며, 환경대학원의 이미지와 적합한 그린과 브라운 색상을 포인트 컬러로 선정하여 대학원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다. Font는 고딕계열 서체로 사이트의 신뢰성 및 가독성을 높였으며, Navigation은 환경대학원의 이미지와 적합한 그린과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포인트 컬러로 선정 대학원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다. Color는 환경대학원 대표이미지색인 에버그린을 베이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구성원 모두의 편리성과 환경대학원의 대외적인 이미지의 상징성에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리뉴얼 사업을 진행 하였다.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연구협약 체결

지난 7월 16일(목)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업무협력 협정식이 열렸다. 이 날 협정식에서 박종화 환경대학원 원장과 유정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향후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천성 있는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 이론 및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 협정서를 조인하였다.



5. 졸업식

"졸업을 축하합니다"

박사

김미형 조홍래 김영래 김영민 임삼진 (도시계획학박사)

한동희 (공학박사)

석사

환경계획학과

민완기 김준혁 강승모 이태원 간수크 박혜정 박정호 안정권 이현지 임미영

조성훈 조원영 강민규 김민성 김창덕 노승철 박신영 박정호 손준형 이주영

이지혜 임혜연 조지영 주희선 허지정 황바람 최요한수 (27명)

환경조경학과

한미옥 원세형 권수현 김영덕 양명환 이규철 이남진 이양희 전선민 한소영

김용국 임성현 (12명)

우수논문상

이남진 “한국형 골프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연구”

한소영 “서울 도시공원의 장소적 재현 연구 : 기념성, 상징성, 장소기억을 중심으로”

6. 2009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009년 8월 19일 오후 한 시부터 환경대학원과 서울숲에서 진행되었다. 최막중 부원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원 소개와 학사 안내, 수업 소개, 대학원 생활과 학생회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각 학과별로 진행되었다. 환경계획학과는 모교 교수님들과 신입생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학원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환경조경학은 오후 한 시부터 다섯 시 반까지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서울숲에 다녀왔다. 약 한 시간 반 가량은 서울숲 방문자 센터에서 이근향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서울숲의 탄생 배경과 오픈스페

이스로서의 의미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들과의 비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 한 시간 반은 직접 서울숲 곳곳을 도보로 체험을 하면서 공간의 배치와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입학 전 환경조경학과 신입생들이 서울의 대표적 공원인 서울숲에 대하여 체험해 봄으로서, 도시공간에서 공원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디자인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7. 신입교수 임용(장수는 교수)

전임교수 1명 임용

환경대학원에서 2009년 가을학기부터 새롭게 교수 1명이 강의를 하게 된다. 환경계획학과 교통관리 전공분야의 장수는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를 받았다.

- 전공 : 교통계획
- 학력 : '01~'04 PhD(교통학), 런던대학교(UCL)
 '97~'01 MSc(도시계획학), 서울대학교
 '92~'97 BA(지리학), 서울대학교
- 경력 : '04~'09 책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00~'01 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8. 교수 동정

환경계획학과

이도원 교수

2009년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바이로트대학교(Bayreuth University)를 방문하여 "복잡한 지형의 생태계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연구지를 답사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생태포럼」에 참가하여 "Ecological approaches to sustainability of ecosystem services in changing environment"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그래프 이론과 탄력성 측정을 활용한 전통 마을숲의 경관 연결성과 생태계 서비스 공헌 분석"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최막중 교수

2009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시재생 R&D 해외사례조사"를 위해 영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시·환경 최고 전문가과정 fellow들을 인솔하여 이탈리아를 방문하였다.

김광중 교수

2009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국 화남이공대학(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열린 「제 16차 세계도시형태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일반주거지의 도시형태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전상인 교수·이영성 교수

2009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도시재생 R&D 해외사례조사"를 위해 일본 오사카와 고베 지역을 방문하였다.

홍종호 교수

2009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윤순진 교수

2009년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동아시아 과학기술과 사회[East Asia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학회」에 참가하여 "Strong technology Ethos in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in Korea"와 "Conflict Analysis on Concentrating Pan-Korea Grand Waterway in Korea from STS Perspectiv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유엔 IHDP」에 참가하여 "Climate Change Policy Development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에서 "Green the Minds: Universities, Climate Leadership, and Sustainable Futures"를 주제로 열린 「Salzburg Global Seminar」에 Freeman Foundation Fellowship의 지원으로 참석하였다.

Sofia. T. Shwayri 교수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Crises and the City"라는 주제로 영국의 워릭대학교 (University of Warwick)에서 열린 「The urban history group annual conference」에 참가하였다. 컨퍼런스에서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industry in postwar rebuilding: The Lebanese 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안식년: 이영인 교수, 이희연 교수

환경조경학과

유병림 교수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중골프장의 보급화사업을 위하여「대한골프학회」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9년 7월에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의 마스터 플랜 현상공모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양병이 교수

2009년 3월 11일부터 동아일보 「환경에세이」컬럼을 통하여 환경 분야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과 관련된 환경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서울대공원국제현상공모」를 위한 PA(Professional Advisor)로 선임되어 공모 준비를 하고 있다.

김기호 교수

2009년 9월 9일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국제회의에 참석하여 “Green Growth for the City: City Design Initiatives thru Greenways”라는 주제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박종화 교수

2009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열린 「ESA Annual Meeting」에 참석하여 "Analysis of spatial patterns and factors influencing wildlife roadkill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ISRS 2009 Seoul, South Korea」에 참석하여 "Land cover classification based on decision tree classifier of monthly NDVI curves obtained from MODIS dat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조경진 교수

2009년 9월 28일에 울산시 주최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울산 그린시티 조성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21세기 도시공원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9월 2일에는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서울의 새로운 공공장소 디자인: 광화문 광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Wybe Kuitert 교수

200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에서 열린 「조경 설계에 있어서 다른 접근 방법론에 관한 워크숍(Approcci metodologici differenti nella progettazione del paesaggio)」에 참석하여 "The Story of the Plac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09년 9월 3일에는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Waterfront & Public Identit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안식년: 성종상 교수

9. 2009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2009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1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새국토연구포럼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7일(토) 오후 2시에 환경대학원과 인문사회계열 멀티미디어동에서 총 18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 개의 특별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

2009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2009년 11월 6일(금)~11월7일(토)

장 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후 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새국토연구포럼

2009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미나 I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일 시: 2009년 11월6일(금) 14:30

장 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천회의실

주 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후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미나 II

전환기에 선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의 재정립

일 시: 2009년 11월7일(토) 10:00

장 소: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멀티미디어동 505호

주 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후 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09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미나 III

강과 지속 가능한 국토

일 시: 2009년 11월7일(토) 14:00

장 소: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멀티미디어동 505호

주 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국토연구포럼

10. 강길부 동창회장

“도시계획·디자인 전공 공직자 채용에 확대 추진해야”

강길부 동창회장은 종래의 양적인 개발과 공급 위주의 계획패러다임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질적인 도시성장관리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계획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관련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구조가 뒤쳐져 있음을 줄곧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라 도시계획 관련 각급 행정부서의 계획행정은 토목직과 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점점 증대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강길부 동창회장은 서울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를 주문하였으며, 이에 각 지자체 장들이 동의를 포함으로서 향후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 디자인과 관련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2008년 '건축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디자인 전공 공무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해 오신 강길부 동창회장은 2009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디자인 직류의 신설 확정을 보고 받았다. 이로써 향후 디자인 전공 공직자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11.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주임교수 김광중 교수 임명

김광중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의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주임교수를 맡아 2009년 7월 1일부터 과정을 운영한다. 공동주임교수로 단우건축 최명철 소장이 임명되어 과정의 운영을 돕게 된다.

12. SGS동창회 이탈리아답사

환경대학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SGS)에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환경대학원과 함께 'SGS동창회 해외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투스카니 와인과 함께 하는 Third Italy: 이태리 중북부 중세~르네상스 도시"라는 주제로 해외답사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7박 9일의 일정동안 베로나(Verona), 비센짜(Vicenza), 라벤나(Ravenna), 울비노(Urbino), 산마리노, 친퀘테레(Cinque Terre), 시에나(Siena), 아씨시(Assisi)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들을 답사하였다.



13. 이승한 고위과정 동창회장 출간 소식

이승한 회장(홈플러스 그룹)이 자전에세이 겸 자기계발서 “창조바이러스 H2C(How to create?)”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이승한 회장이 어린 시절부터 최근 홈에버 인수에 이르기까지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발견한 창의성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으며,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탈바꿈 시키는 6가지의 창조바이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14. CEO지속가능경영포럼 해외시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의 9기 과정생들은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친환경 산업도시인 기타규슈와 도요타 등 일본에 4개 도시를 방문하였다. 참가자들은 방문기간 동안 기타규슈 산업경제국, 도요타시청 환경모델과, 도요타의 숲, 에코타운 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내 환경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수 사례를 시찰하고 정책대안 개발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5. 이만의 환경부 장관 공개 강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9월 29일(화)에 있었던 환경대학원 CEO지속가능경영포럼 초청특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의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대하여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셨다. 또한 이 자리에는 환경대학원 박종화 원장, 양병이 주임교수를 비롯한 많은 원내 교수들과 CEO지속가능경영포럼 9기 Fellow 및 (사)지속가능경영포럼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16. 제9기 CEO지속가능경영포럼 수료식

10월 13일(화)에 제9기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정 수료식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 룸에서 행해졌다. 4월에 시작하여 6개월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27명이 수료를 하였다. 이 날 수료한 동문들은 그동안 과정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앞으로 CEO지속가능경영포럼 9기 동문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17. 도시환경포럼 6차 포럼개최

‘도시·환경포럼’은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을 수료한 Fellow들이 회원간의 자발적인 상호학습을 지속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SGS동창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14일(목)에 환경대학원 박종화 원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로드킬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6차 포럼을 가졌다. 회원 70여 명과 대학원 교수님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18. 제9기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출범식

1995년 설립된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에서 2001년부터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9기가 10월 6일(화)에 출범하였다. 앞으로 6개월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건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시·환경 분야의 중요한 주제와 현안과제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19. 제9기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국내시찰

10월 6일 출범한 제9기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에서는 10월 10일(토) ~ 11일(일)에 걸쳐 국내시찰을 진행했다. 국내시찰은 국내 도시환경 관련 우수 사례 및 기관 방문을 통하여 도시환경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도시환경 분야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각 분야의 fellow들이 함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 해에는 최근 'Business Hub of Asia'라는 인천광역시의 야심찬 도시 VISION 실현을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천시 도시계획관, 인천세계도시축전, Tomorrow City관, 동북아 트레이드 센터, 인천대교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